“지역불교 화합, 발전가능성 극대화”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승가는 사전적으로 중(衆)·화합중(和合衆)을 의미한다. 승가는 교단생활을 하는 화합한 대중을 가리키며, 줄여서 승(僧)이라고도 한다. 종단도 하나의 승가이고, 각 교구별로 또 작은 승가가 존재한다. 지역별로 본다면 지역사찰과 암자들의 모임이 승가에 해당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불교연합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창립과 함께 회장에 취임해 3년째 혁신적인 승가의 활동을 펼치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광주지역 내에서 단연 화제의 주인공이다. 스님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그보다 지역스님들과의 화합과 올바른 승가단체의 활동 때문이다.

“개인의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불교의 숲을 가꾸는 것이 더 큰 힘이고 바른 포교입니다. 숲에서 한 나무만 대단히 크는 것보다, 다 같이 크는 것이 더 많은 그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불교연합회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 사암 연합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사업은 모두가 참여하는 봉축행사다. 연광 스님이 회장에 취임하기 전 광주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내홍과 불신이 존재했다. 급기야 2013년에는 해방 후 50여 년간 이어진 봉축행사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해 10월 불교 주요종단 연합체이자 출가단체인 광주불교연합회가 새로 결성됐다.

“광주불교연합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성도재일 행사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입니다. 봉축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신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행사가 되어야 연합회가 튼튼해집니다.”

연광 스님은 연합 봉축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가 지역사찰과 단체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큰 봉축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광주지역 불교활동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만들어 전문적인 봉축행사 진행의 첫걸음을 디뎠다. 이후 지역불교에서는 드물게 전통등 만들기 보급을 3년째 지속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역불교 화합 매진
봉축·성도재일 행사 발전 거듭
운영위원회 대중공사가 밑거름

여기에 올해에는 서울 봉축행사의 백미인 전체율동과 연희단을 사찰별로 만들어 흥겨움을 더했다. 효과는 대단했다. 최근 10년 이내의 참가자 평균에 2~3배가 넘는 참여도가 나왔다.

이렇게 적극적인 지역불교활동을 펼치는 연광 스님이 강조하는 덕목은 ‘화합과 희생’이다.

“화합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혼자 산에서 자기 수행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도시에 나와 사찰 주지로서 포교하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특히 수행을 통해 자비심이 나오고, 화합과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현재 연광 스님은 광주불교연합회 행사 외에도 지역불교 최초로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를 부설단체로 설립해 지역불교발전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팔 지진피해 돕기를 지역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해 총 9600만원을 피해지역에 전달했다. 불교단체실무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개설한 ‘모금 강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불교의 문제는 스님들 개인은 잘 살지만,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지 못한 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재가활동가들을 위한 활동 마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광 스님은 연합회 회장직과 더불어 증심사 주지, 조계종 제21교구종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연합회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한다.

“회장 직책은 그 기간이 한정돼 있어 때가 되면 물러나지만, 회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운영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연합회에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다. 중요한 일은 운영위원회 대중공사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연광 스님은 “매월 지장재일 오후에 열리는 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날이다. 여기에 역량 있는 불교활동가를 실무진으로 배치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캐나다 현직 교사들, 대흥사서 불교문화 만끽

1박2일 템플스테이로 심리적 위안



사물을 감상하는 캐나다 교사들.

캐나다 현직 교사들이 한국의 전통산사를 찾아 화제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8월 6~7일 캐나다인 25명이 참여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행사는 한국에 관심 있는 캐나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대흥사 템플스테이를 선정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방문과 함께 산사체험의 기회를 갖고자 땅끝 해남 대흥사를 찾았다. 이들은 입재식과 회주 보선 스님의 법문, 불교예절, 산사음악회, 예불, 명상, 트레킹 등을 체험했다.

보선 스님은 법문에서 “진정한 불자라면 팔정도를 생활화해야 한다. 팔정도를 잊어버리면 불교신자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른 모든 종교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팔정도야말로 인류와 모든 생명의 존엄을 실천하는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캐나다 현직 교사 피터 아귀알 씨는 “한국의 오래된 전통사찰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아름다운 사찰을 보게 돼 정말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法王廳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합동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 / 오후 1시 30분

전계대화상 :
世界佛教徒의 法王 –
우 꾸마라 사야도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Bhaddanta Kumarabhivamsa
Bhamo Sayadaw
Agga Maha Saddhammajotika
Agga Maha Pandita
Chairman of the 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 교수아사리 :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의 화신 제13대 에인다 빠라 삼장법사. 연방승가회 부회장 사야도
■ 갈마아사리 : 법왕청 법왕 보좌 비서실장 – 목탁 대승정 | 짜익티오성 사야도

한국본부 전계대화상 | 교수아사리 | 갈마아사리

三師 108證明團합동 建幢(건당)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정중히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이 법석에 모시고자 합니다.

석가세존에게 테라와다 불교의 정법을 위촉받은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계첩에 이름을 올릴
3師 108 證明團에 韓國佛教 高僧 元老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승려 60만의 불교나라 미얀마 최고의 큰스님과 부종정 사야도, 경전의 화신 13대 삼장법사,
짜익티오성 사야도와 상원의원 활동과 마얀마 신정부 경제특보이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불교에 보시한
보시의 화신 닥터 킨쉐이 박사가 동참하여 성스런 불교의식을 한국에서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대한불교 108 종정연합회
대한불교 고승 장로단
세계불교 고시위원회
국제붓다봉사단
대한불교 종단 인권위원회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 협의회
대한불교 원로 장로단
대한불교 대종사 연합협의회

총괄본부장 : 아까마하 사다함마 저티카 하자 大僧正 목 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 02)733-5665. 010-3618-6061

여름방학 책임진 山寺들의 체험여행

금산사·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어린이 프로그램 실시

전북지역 주요 사찰들이 여름방학과 휴가를 이용한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산사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어린이 청소년 여름 산사수련회는 참선수행과 명상, 물놀이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8월 9~11일 ‘나도 쉬고 싶다’는 주제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는 예불, 천자문 읽기, 행복 108배, 염주만들기. 전통놀이, 물놀이, 영화감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금산사 여름템플스테이는 모악산 계곡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여 참가 어린이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는 후문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8월 5~7일 부안 내소사에서 제22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동참한 이번 여름생태학교는 다양한 자연체험과 숲 명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넓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자리로 꾸며졌다.

내소사 대웅전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예불, 영어명상, 전래놀이 체험, 나와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먹거리 만들기, 즐겁게 배우는 통일이야기, 영어게임, 직소폭포 트레킹, 물놀이 등 도심 속 어린이들이 자연의 품속에서 맘껏 뛰놀면서 자연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8월 5~7일 부안 내소사에서 진행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 여름생태학교.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천년고찰 내소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길 바란다”며 “다가올 미래세계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전주 참좋은우리절, 남원 실상사 등도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가는 길’ 전봇대 없애 경관 살린다

고창군, 선운사 일주문~도솔암 6km 구간 지중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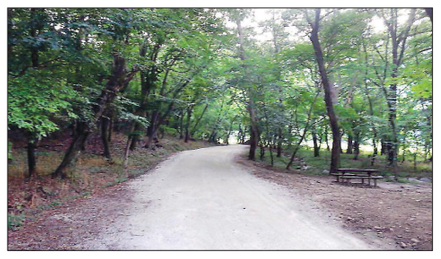
앞으로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자연경관을 해치던 전봇대와 전깃줄이 사라져 더욱 아름다운 사계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선운사도립공원 내 경관을 해치는 전선과 통신주 등을 제거하고, 필요 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2차 지중화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고창군은 선운사 일주문서 도솔암에 이르는 6.15km 구간의 전봇대와 전깃줄 등을 모두 없애고,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 1차 사업을 시작, 선운사 일주문부터 도솔암 구간 5km에 걸친 전봇대 등을 모두 철거했다.

나머지 일주문과 매표소 인근 1.15km 구간도 11억 원의 예산으로 올 하반기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운사 지중화사업은 고창군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KT·SK·LG가 총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운사 자연경관이 한층 더 아름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운사가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산은 기암괴석이 많고, 풍광이 뛰어나 ‘호남의 내금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시사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선운사 일주문에서 시작된 ‘선운사 가는 길’은 아름다운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등이 호위하듯 서 있는 아름다운 숲길로 1년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하지만 일주문서 도솔암에 이르는 구간 곳곳에 전기시설 등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전봇대와 전깃줄 등이 사라진 ‘선운사 가는 길’ 구간.

고창군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을 통해 선운산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유네스코 생물보전권 핵심지역 청정이미지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